



“자궁암 조기발견으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건협 인천지부 농협조합원 건강검사에서 암 발견하고 치료



자궁암을
조기발견·
치료한
이정순씨

아무 질병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 특히 불치병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암”에 관한 한 자신과는 무관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램일 것이다. 또 뜻하지 않게 병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진이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닐까.

건협 인천지부에서 우연한 기회에 건강검사를 받고 자궁암을 조기발견하여 치료를 받았던 이정순씨와 김현자씨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농협조합원 건강검진을 받은 이들은, 자신들이 암에 걸려 있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모두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정기 건강검사를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이 얼마나 중요할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었던 이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건협 인천지부의
끈질긴 노력과
검사결과와 정확성에 대한
신념이
저를 살렸습니다.』라고
이정순씨는 말한다.

● 믿기지 않는 결과에 다른 병원서 재검

이정순씨(54세, 인천시 남구 옥련동)가 건협 인천지부에서 건강검사를 받은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남인천 농협 조합원인 이씨는 이날 농협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건강검사를 받은 것이다. 이씨의 검사결과는, 자궁암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건협 인천지부는 이씨에게 이를 통보하고 서울지부에서 재검을 받도록 했다. 결과는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나 이정순씨는 『처음에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인천의 모 유명 산부인과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시다. 그랬더니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라며, 당장에 건협 인천지부를 찾아가 정신적 피해 보상과 오진에 대한 항의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사결과 판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건협 인천지부는 이씨를 설득하여 또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했다. 그러나 결과는 이상없음이었다.

● 원자력 병원에서 재검결과, 이상있음...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해야 했던 인천지부는 이씨에게 마지막으로 원자력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도록 권했다. 다행히 이씨는 협의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고 마침내 검사가 이루어졌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김현자씨는 건강검사 권유가 썩 내키지 않았었는데 뜻밖에도 자궁암을 발견했다.

결과는, “암세포 변화로 전이되는 과정” 즉 자궁암이 시작되는 시초단계였다고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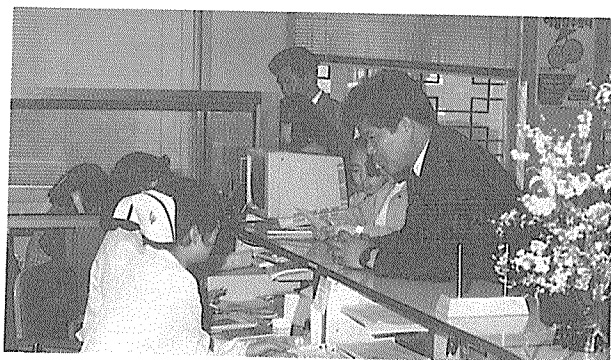
결국 이정순씨는 원자력병원에서 자궁절제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후 협회를 찾은 이씨는, 『저 스스로도 무슨 이상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협회의 검사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끈질긴 노력과 검사결과 of 정확성에 대한 신념이 저를 살린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 증상이 없는데도 자궁암은 많이 진행된 상태

같은 해 12월에 역시 조합원 건강검사를 받은 김현자씨(49세. 인천시 남구 주안3동). 그녀는 남인천 농협 황정석 공제부장의 권유로 건협 인천지부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2남1녀를 키우며 살아왔던 김씨는, 매우 활동적이고 자신의 건강에도 자신이 있었으므로 황공제부장의 권유가 썩 달가운 것은 아니었으나 성의가 고마워 검사를 받기로 했다 한다.

검사결과는 자궁암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건협 인천지부는 결과와 함께 자궁암에 대한 설명을 김현자씨에게 상세히 해주었다.



어느 질병이나 초기에는 아무 증상없이 지낼 수 있지만, 이상을 느끼고 발견을 했을 때에는 이미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의외로 침착하게 대처하는 여유를 보여줘

설명을 들은 김씨는 『만일 정말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되어도 살 수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며 인천지부의 원자력병원에서의 재검에 선선히 응해 주었다. 의외로 침착한 그녀의 태도에 오히려 인천지부가 당황할 정도였다고...

검사결과는, 역시 자궁암 초기단계였다. 김현자씨는 곧바로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여전히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 정기 건강 검사, 꼭 필요하다.

이정순씨와 김현자씨의 경우, 모두 자궁암이었으나 어떤 증상도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다. 어느 질병이나 초기에는 이처럼 아무 증상없이 지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상을 느끼고 발견을 했을 때에는 이미 치료가 어려운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질병의 조기발견, 이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연한 기회"에 질병을 조기발견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행운이 아니다.

어떤 행운에 우리의 건강을 맡기기 보다는 확실한 보증수표인 정기 건강검사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지켜보도록 하자. ☑